

어린이집탐방

“베풀 줄 아는 어린이·지혜로운 어린이로”

대진어린이집

종사자 모두가 지역출신이라 더욱 열정 ... 인구 감소 속 마을의 희망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위치한 국공립 대진어린이집(원장 김경래)은 31명의 원생과 6명의 교직원인 선생님 마음과 어머니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사랑과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래 원장

지난 18일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1983년 7월 10일 대진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원한 대진어린이집은 다양한 보육활동의 유형과 방법을 통해 예절 바르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신나는 어린이 △착하고 예의바른 어린이 △웃음과 꿈이 있는 어린이로 육성함을 보육철학으로 어린이 보육에 매진하고 있다.

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해 자신감 있는 어린이 △좋은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책임감 있는 어린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어린이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진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의 6개영역별인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 사회관계영역,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경험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 지식, 기술을 제시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한다.

또 지역 기관을 연계해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활감 넘치는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시설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대진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모두가 지역출신으로 어린 시절 현재 어린이집의 모든인 대진 새마을 유아원 출신들이라서 지역의 후배들인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진어린이집 김경래 원장은 “영유아기 때의 많은 부분이 인생의 지표가 됨을 생

각할 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일하기에 우리의 보육철학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늘 숙지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계절마다 계절을 가장 깊숙이 가장 푸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대진 어린이집”이라며 “좋은 공기속에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라 성정도 자연을 닮아 푸르고 깨끗하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금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마을 재정이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친구들은 그야말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진어린이집 원생들이 화진포 해양박물관을 관람했다.

또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동량이 될 우리 친구들의 자람에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보람이 헛되어지지 않기를 오늘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5>

고성팔경(高城八景)⑧ 울산바위 II

여러 개의 이름이 담긴 울산 바위

단일 바위로는 남한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울산바위는 설악산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 780m, 둘레 4km가 넘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30여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산을 말한다. 아름다운 암봉으로 정상 전망대까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걸어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

울산바위 아래에서 정상까지는 바위 높이만 200여m에 달하며, 30~40분이 걸리는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울산바위 정상부의 전망대는 두 군데이며, 두 곳이 바로 옆으로 나란히 있다. 울산바위 정상에 서면 대청, 중청봉과 천불동계곡, 화채능선이 아우르는 전망이 아주 빼어나며 동해바다와 달마봉, 학사평저수지 일대를 둘러볼 수 있다.

울산바위 아래로 계조암에는 사람 혼자 밀어도 흔들리는 것으로 유명한 흔들 바위가 있다. 계조암은 천연바위동굴을 이용해 만든 암자이며, 흔들바위 앞에 서면 계조암 뒤로 펼쳐진 울산바위의 경관이 아주 빼어나다.

이러한 비경 속에 일찍이 사대부와 시인묵객들이 많은 기행문과 한시 속에 나타나고 있다. 산의 이름이 처음으로 거론되는 16세기 중반의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과 『여지도서, 1757(영조 33)~65년』편에서는 울산바위를 이산(離山), 이산(離山)으로 각각 소개하고 있다. 인용문을 참조하면 “부(府)의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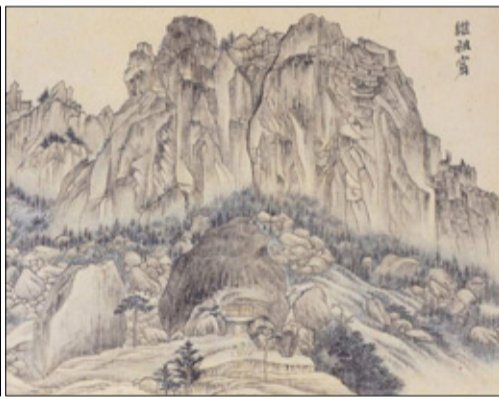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울산바위 설경, 김홍도의 계조굴 그림, 간성군 지도(1897년).

대관령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름 하였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고 전한다.” 향간에는 천후산과 울산바위가 서로 다른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간성군지도(杆城郡地圖)에서 발견된 점과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 천후산과 울산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바 천후산과 울산바위는 같은 의미로 보고자 한다. 특히 관찬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부 산천조(山川條)』에서 이산(離山)과 울산(蔚山) 또한 천후산(天吼山)이라고 부른다고 적고 있으며 김홍도(金弘道, 1745~?)의 『해산첩(海山帖)』 계조굴(繼祖窟, 1788년) 작품에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사찬지리지『수성읍지, 1897년』는 울

산암(鬱山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고을) 남쪽 60리 미시령 부근 일대에 바위가 총총이 솟았는데 바위산이 마치 풀포기 같이 옆으로 5,6리나 뻗어 마치 기치장검이 좌우로 달려가는 듯한 웅장한 기상이다. 비록 금강산 밖에 있으나 금강산 못지않은 기암층석이라고 한다.

2002년 속초문화원이 발행한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는 이 산에 대한 명칭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보고 있다. 필자가 하나를 더 첨가하여 4 가지로 보고자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는 산, 울고 있는 산이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이 산에 바위 구멍이 많아 산중에서 바람이 스스로 불어나와 산이 울리는 것 같다고 하여 천후산(天吼山)과 둘째, 거대한 바위가 마치 울타리처럼 우뚝 솟아 있으므로 한자어

로 ‘울타리 리(籬)’자를 써서 이산(離山)이라고 한다. 셋째, 바위봉우리가 뻗뻗하게 가로질러 막혀있는 관계로 하여 한자어로 ‘막히다 울(鬱)’자를 써서 울산암(鬱山巖)이라고 한다. 그리고 넷째, 조물주가 금강산(金剛山)을 만들 때, 경상남도 울산(蔚山) 지방의 거대한 바위가 금강산으로 찾아가다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울산(蔚山) 바위라고 한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 (선유암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